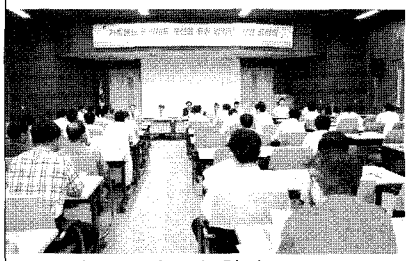
'가축분뇨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난항

'자원화' 법이냐 '규제'냐 공청회서 축산농가 반문



최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각 조항에 알맞은 구체적인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과 함께, 축산농가에서는 동 법률안이 '자원화' 촉진이 아닌 '규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은 지난 7월 22일(금) 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농가들은 이번 개정법률이 과거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통일하고 자원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방침에 큰 환영을 나타냈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규제가 강화된 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며, 동 법률안이 '자원화' 촉진이 아닌 '규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오분법에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종극 본회 이천지부장과 박호근 포천지부장은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릴판"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자원화를 법적으로 의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호 본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포기간을 봄가을로 지정, 지자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유기 및 친환경농산물에 공장형 축분비료도 사용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과 같은 규제조항은 법 시행시 6개월 후에 바로 실시하기 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130페이지 참조)

본회, 직접 양돈장 냄새 잡는다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 및 냄새 저감 방안 조사사업 계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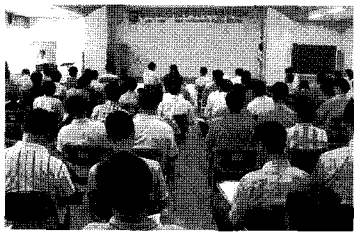
본회가 양돈장 냄새를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분뇨문제와 함께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양돈장 냄새는 늘 양돈농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악취방지법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양돈장냄새는 양돈인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에 본회는 2005년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냄새의 실태를 조사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한 조사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연구기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으로 정해 전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계절별, 규모별, 사육시설별, 환경개선제 등 사용별로 냄새 수준을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양돈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악취방지법 등 법령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순회교육" 성황리 마무리

전국적 소모성질병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돼



본회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순회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인 PMWS, PRRS, PED, PRDC의 혼합감염에 의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본회를 비롯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농협중앙회, 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된 방역대책팀은 각 역할을 분담해 양돈농가 교육·홍보 및 농가설명회, 만성소모성질병 다발지역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수)~8월 5일(금)까지 실시된 이번 순회교육은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지난 7월 27일(수) 충남지역(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경북지역(칠곡 농업인회관), 전남지역(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교육을 시작으로 7월 29일(금)에는 경남(김해 농업기술센터)·충북(충청북도 농업기술원)·전북지역(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이어 8월 1일(월)에는 제주지역(제주 양돈축협), 8월 3일(수) 경기지역(경기도 한국마사회), 8월 5일(금) 강원지역(강원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PMWS, PRRS, PED, PRDC 등 돼지만성소모성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수칙과 사양관리 개선방법 등을 동시에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 함께 만성소모성질병에 관한 역학조사도 함께 이뤄져 경기(포천시), 강원(철원군), 충남(홍성군), 충북(진천군), 경남(영천시), 경북(김해시), 전남(나주시), 전북(익산시), 제주(북제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분만사·이유사·육성·비육사 관리의 적정성, 소독시설 설치 활용여부, 격리시설 활용여부 등을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본지 197페이지 참조)

본회, 한-캐나다 FTA 강력 반대 성명 발표

양돈산업 황폐화 불 보듯 뻔하다

본회는 지난 7월 29일 '한-캐나다 FTA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란 성명서를 통해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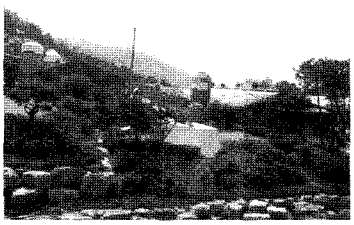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서 만약 한-캐나다 FTA가 체결된다면 양돈산업을 포함한 국내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육류의 대대적인 수출을 위해 동식물 검역문제를 다룰 전담위원회(SPS)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169%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FTA 타결시 한국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단기적으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는 상당한 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양돈산업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한 한-캐나다 FTA 체결을 기필코 반대한다고 밝혔다.(본지 117페이지 참조)

돼지농장 사진 콘테스트, '옥상에서 바라본 삶의 터' 대상

친환경 농장 사진 출품작 많아 심사 고심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에 개최한 「아름다운 돼지농장 사진 콘테스트」 심사에서 경북 예천 김구진씨(56세)가 출품한 '옥상에서 바라본 삶의 터'가 총 143점의 많은 출품작 가운데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출품작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의 조화와

깨끗한 양돈장 환경이 잘 표현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돈사와 주변 환경의 구도가 훌륭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열띤 경쟁을 벌인 이번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에는 경기 안성 양호근씨의 '돼지울의 봄날', 서울 서초 여성복씨의 '친환경적인 돼지농장'이 선정됐으며, 특선에는 전북 김제 이현숙씨의 '자유시간(자동스톨사)', 경북 영주 조복래씨의 '진짜 돼지는 어디갔어?', 전남 영암 박은주씨의 '자연과 어우러진 초록빛 농장1'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가작 5점, 장려 10점, 입선 10점 등이 각각 선정돼 전경이 아름다운 농장 및 깨끗한 돈사 내부 시설 모습, 돈사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 고루 선정됐다.

지난 7월에 열린 '예쁜돼지 사진 콘테스트'와 이번에 개최된 '아름다운 돼지농장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은 오늘 8월 31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실시된다.(본지 133페이지 참조)

5개 단체 축산농가 박람회 참여 위해 '전력 투구'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대회장 최영열, 추진위원장 윤희진)의 구체적인 세부 행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축산박람회의 세부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목)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양돈 · 양계 · 낙농육우 · 한우 ·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및 대전무역전시관장, 박람회 추진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동주최 단체장 회의를 열고, 그 동안 확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 첫째 날인 8월 31일(수)에 개최되는 개관 행사에 최영열 대회장(양돈협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 및 추진위원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 농림부 박홍수 장관 등이 테이프 절단식 초청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마련되었던 부대행사 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축소방침 철회되어야

-본회,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축소 철회요구 성명 발표

본회는 지난 8월 17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란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축소방침을 강력하게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은 졸업 후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은 농어업인의 자녀여부에 상관없이 농과대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는 것과 모든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올해 지원될 학자금 규모가 2005년 1학기 71억원에서 금년 2학기에는 35억원만 지급될 예정으로 1학기 학자금 수혜대상자였던 농축산대학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이는 지원혜택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농과계 자녀의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표방하듯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졸속적이고 탁상행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축소는 기필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를 유지 · 발전시켜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본지 117페이지 참조)

KISTOCK 2005 해외바이어 대거 방한

-해외 14개국 23개 업체 29개 부스 전시 참여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오는 8월 31일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박람회는 총 15,250㎡ 면적에 15개국 230여개 업체, 약 600여개 부스 규모로 꾸며졌으며, 총 600여개 부스중 유료부스는 국내 · 외 축산관련 198개 업체 540개의 부스, 국내 기관 · 단체 및 언론사, 해외 기관 · 단체 및 언론사 등의 홍보관 등 60여개 부스가 확정됐다.

이중 국내업체는 전체 175개 업체, 총 511개 부스이며, 해외업체는 빅 더치맨(Big Duchman), 바이오민(BIOMIN) 등 전체 23개 업체가 29개 부스를 꾸미는 등 이번 박람회가 예년과 다른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위용을 갖춤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미얀마, 사우디 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바이어들이 참관할 뜻을 밝혀오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이번 박람회에 국내·외에서 많은 참관객이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돼지 값 급락 일시적 현상, 다시 회복세

-본회, 돼지 정상출하 당부

본회는 최근 돼지가격이 급락한 것과 관련해 양돈농가에서 가격 변동에 의해 돼지를 홍수 출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육돈 서울평균시세는 4,100원대에서 7월 하순 불과 2주 사이에 3,100원대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회는 이러한 현상이 작년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이는 학교 방학에 따른 급식수요의 감소와 장마 재고 증가분을 장마 후 방출로 인한 지육수요 감소, 휴가철 도심수요와 단체급식 수요 감소, 저가 수입 돼지고기 방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본회는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 양돈농가가 돼지를 홍수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더불어 앞으로 돼지가격이 추석 때까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다가 추석 이후 완만하게 가격이 하락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 정상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돈업 등록률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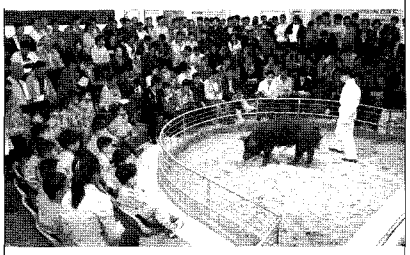
-본회, 9월까지 조기 등록 완료 당부

7월 28일 현재 양돈업 등록 대상 농가 총 9,423 농가 중 70.4%에 해당하는 6,633 양돈농가가 양돈업 등록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전라북도의 등록률이 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2.2%, 강원도 65.6%, 충청북도 94.5%, 충청남도 71.4%, 전라북도 39.2%, 전라남도 66.6%, 경상북도 73.5%, 경상남도 66.0%, 제주도 83.3%로 나타났다. 한편 본회는 축산업 등록제가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등록하지 않은 양돈농가에서도 오는 9월까지 조기에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104만원 기록

지난 8월 10일(수)에 열린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80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104만968원을 기록했으며, 낙찰총액은 1억 6,135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1두, 최우수돈 11두를 포함해 총 157두의 합격돈이 상장됐으며, 이 가운데 155두가 낙찰됐다. 이중 수컷은 총 109두, 평균낙찰가 115만8,440원으로 나타났으며, 암컷은 총 49두, 76만2,609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우정종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84점) 최우수돈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협진농장 이상국씨에게 최고가인 380만원에 낙찰됐다.

이밖에 문경FINE 듀록(선발지수 280점) 최우수돈이 350만원,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6점) 슈퍼돈이 3백만원 등으로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영주지부, 돈사 환기 관련 세미나 열어

영주지부(지부장 김익현)는 지난 7월 12일(화)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을 맞아 양돈장 환기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익현 영주지부장 외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돈사환기" 세미나를 듣고 돈사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펼쳤다. 한편 출하차량 이용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횡성지회, 창립기념 양돈인 만남의 자리 마련

횡성지회(지회장 정종만)는 지난 7월 19일(화) 횡성군 지회 창립에 따른 양돈인과 양돈산업 관계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횡성군청 제2청사 축정산림과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최영열 본회 회장을 비롯해, 횡성군수, 강원도협의회장, 축정산림과장, 본회 회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횡성군 양돈산업의 발전방향과 횡성군 이유자돈방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안건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강원대학교 채병조 교수는 하절기 양돈사양 관리 및 지역 축산물 브랜드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어 준동물병원 김준영 수의사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양주지부, 최근 양돈현안 관련 논의

-"하나된 양주지부" 하계 단합대회 개최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지난 7월 12일(화) 지부 사무실에서 조윤상 지부장 외 회원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및 연변연수생 신청 등 최근 양돈현안에 대해 논의시간을 갖았다. 한편, 지난 8월 10일에는 양주관내 아카시아농원에서 제2회 하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지부 회원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양주지부는 양돈농가 50여 농가를 비롯해 양주시의회 이상원 부의장, 이항원 의원, 현삼식 양주시 사회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 송용철 소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조윤상 지부장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양주지부의 단합된 모습이 돋보였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표했다.

행사에 함께한 관내 의원 및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철원지부, "청정한 돼지고기 시식하세요"

철원지부(지부장 성시명)의 돼지고기 홍보 행사가 한창이다.

철원지부는 지난 8월 6일(토) 휴가철을 맞아 철원군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철원군민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청정한 맛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특히 철원지부는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돼지고기 시식회 행사를 갖고 있으며, 더불어 휴가철 기간인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매일 돼지고기 소비홍보 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 등 국산 돼지고기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홍천지부, 지역주민 대상 돼지고기 시식회 열어

홍천지부(지부장 고영민)는 지난 8월 6일 홍천 공설운동장 앞에서 강원도민 체전을 맞이해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 지역주민 800여명이 방문해 국산 돼지고기 요리를 시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홍천지부는 "이번 행사가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의 참맛과 청정 강원 돼지고기의 맛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를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돈